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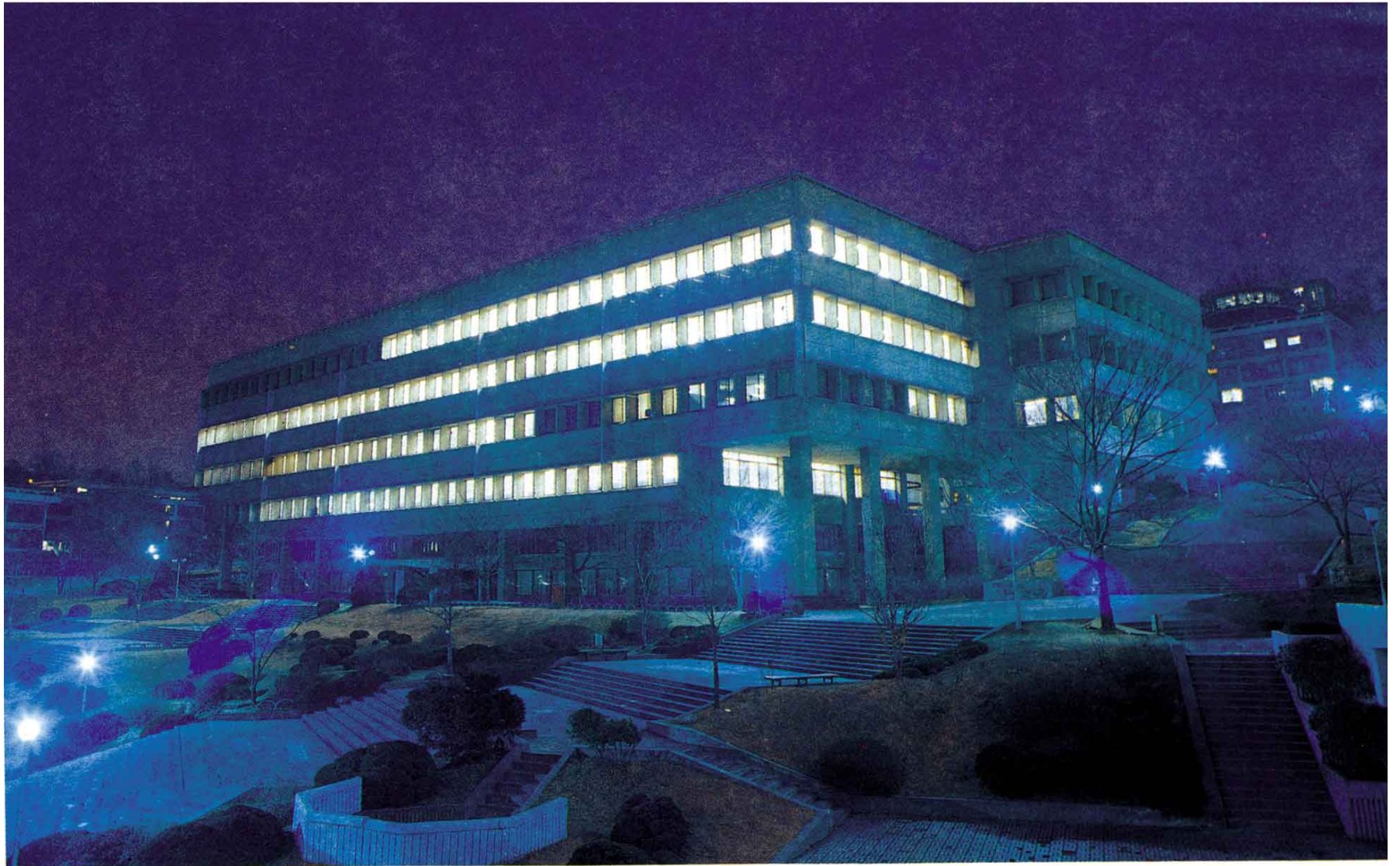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鍾
印刷人 韓 鍾 愚

發 行 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 銀行지로番号 : 7500875
•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歲暮의 불빛에 밝은 내일이 鼓動친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母校圖書館 : 유난히도 사건이 많았던 87년이 저물어간다. 선거열로 어수선해진 歲暮의 분위기에다 아랑곳하지 않는 후배학생들이 밤을 낮삼아 오늘도 도서관에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 知識의 발을 가꾸고 있다. 사진 : 대낮처럼 밝혀진 母校의 중앙도서관.

冠岳春秋

1987년도 저물어간다. 多事多難했던 해가 어수선하게 지나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87년은 유난히도 사건이 많았던 해이다. 정치적으로도 4·13憲法措置, 6·10大會戰, 6·29宣言에 이어 10·27國民投票, 12·16大統領直選으로 이어진 파란만장한 한해였다. 5共和國에서 第6共和國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試驗의 한 해였다.

大學도 예외가 아니어서 憲法條文을 東으로 최후판과 돌이 날든 캠퍼스가 中間試驗拒否등으로 수난이 겹치더니 6·29 이후 總長更迭과 補職教授大幅交替를 가져왔고 校庭에는 이제 民主大統領選舉運動이 한창이다. 2학기를 마무리 하는 期末試驗도 학생들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치루어지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적인 학사행정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에 도서관과 연구실 전신실등에는 政治의 계절을 아랑곳하지 않고 學業에만 전념하는 교수 학생들의 발을 밝히고 있다. 先志願後試驗의 첫 入試도 이제 얼마남지 않아 3대 1이 넘는 열기를 확산하고 있다. 눈모래를 녹이는 학문탐구의 열기는 대견스럽기만 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연재 읽었는지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공부에만 열중했던 獨逸教授像이 떠오르기도 한다. 學園은 政治가 어찌되었건 經濟가 어찌되었건 學問의 열정은 조국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의 것이기에 時流에 흐르지 말고, 많은 바 研究·授業에 전념해야 한다. 사회도 학원이 안정되고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87년에는 大學發展基金造成事業이 진행되어 30억원이 납입되고 50억원이 청산되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 확산된다면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大學의 研究機能의 확충은 文敎部의 研究費增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科學·技術의 振興策으로 自然科學綜合研究所란가 工科大学研究所, 醫科大學研究所등 많은 지원을 받았고 팔복할 만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人文·社會분야는 아직도 연구지원이 미흡하고 교수들이 연구비가 없는 연구를 하지 못하는 한심한 상태에 놓여있다. 人文·社會·기초과학분야의 연구는 당장에는 그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먼 장

亂世에도 大學만은...

래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정해놓은 일이다. 大學의 自律性提高는 憲法的要請이다. 그동안 大學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원의 불안을 조성해 왔다. 新憲法이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추가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 敎員의 地位向上도 憲法的인 요망이다. 그런데도 大學教授에 대한 再任命制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으며 大學教授會의 自治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이 敎授協會가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大學評議會는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敎員의 지위는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敎員의 경우 正敎授나 副敎授의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교수 1인당 조교 1인을 배정해 주어야 할 것이요,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 직원(專任)이나 專問的인 電算委員 Word Processor委員이나 타이피스트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大學院大學을 부르는 母校에서는 아직도 大學院學生에 대한 論文指導, 論文審査등에 대한 시간의 의무시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敎員의 봉급을 私立大學水準으로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비라도 대폭 늘려서 품위유지라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오늘날 大學의 政治的中立性은 의되고 있다. 그러나 現行法上 大學의 助敎授 이상의 敎員은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고 학생도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政治的無風地帶을 연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대학원수가 정치무대에서는 안된다. 대학교수와 학생은 知性人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 몸으로 정치화되어서는 안되며 학생과 교수는 시민으로서 學園밖의 政治場에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1988년은 政權交替가 행해지는 해이며 國會議員選舉, 地方議會議員選舉가 행해지는 해이다. 많은 大學敎授들이 임기만료로 재임명을 받아야 하는 숙명의 해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을 것은必至이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성이豫見된다. 올린외개최방해를 위한 채동도 보이는 이때 88년의 學園은 어수선하기만 할 것 같다. 學園에 불이 꺼지는 날에는 민족의 장래는 암담해질 것이다. 비록 사회는 혼란하더라도 학원에는 勸學의 열기가 가득차도록 敎授, 學生, 社會는 일치단결하여야 하겠고 學園의 安定과 研究振作이 이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87決算總會 잇따라 열려

音大 새 회장에 鄭佑賢 동문

保健大學院은 金大奎동연 신출

年末이 다가옴에 따라 定期總會를 비롯한 동창회의 각종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달에만도 1일 열렸던 環境大學院 동창회를 필두로 본會 10개 동창회에서 送年會를 가졌거나 있다. (送年會는 11월 2일 定總會를 열고 會長을 비롯한 임원진을 새로 개설했으며, 獸醫大學 定總會도 21일 본會 會館에서 1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會場에 88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母校에 備品구입비도 전달

◆保健大學院同窓會 보고, 예산안 및 박사 임원개선이 있었으며, 鄭佑賢 회장의 후임으로 金大奎 동문(68년주)이 선출되었다. 鄭佑賢 회장은 198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 獸醫大學院 定期總會 光景

임원개선이 있었으며, 鄭佑賢 회장의 후임으로 金大奎 동문(68년주)이 선출되었다. 鄭佑賢 회장은 198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 獸醫大學院同窓會 (회장 金大奎)는 지난 21일 하오 3시 본會 會館에서 全東龍 회장을 필두로 임원진 개선을 위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8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會場에는 인사에서 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獸醫大學院同窓會 (회장 金大奎)는 지난 21일 하오 3시 본會 會館에서 全東龍 회장을 필두로 임원진 개선을 위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8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會場에는 인사에서 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獸醫大學院同窓會 (회장 金大奎)는 지난 21일 하오 3시 본會 會館에서 全東龍 회장을 필두로 임원진 개선을 위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8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會場에는 인사에서 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獸醫大學院同窓會 (회장 金大奎)는 지난 21일 하오 3시 본會 會館에서 全東龍 회장을 필두로 임원진 개선을 위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8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會場에는 인사에서 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故朴明鎭學長 胸像제막

遺家族 제자참석 校庭서 거행

故 朴明鎭學長을 지난 11월 11일 오후 4시 유가족을 비롯, 평소 사귀어온 제자, 후배, 제자 및 친척, 교수 등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齒大 교정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南東錫교수(치대동창회총무)의 개회선언에 이어 柳錫錫동생인 柳錫錫(柳錫錫)의 상헌집전행차 柳錫錫의



◇ 齒大 초대학장을 지낸 故 朴明鎭 박사의 흉상제막식에서 金周煥 동창회장이 봉헌사를 하고 있다.

10회 테니스大會 성료

老童部·靑壯年部등 70여명 對戰

10회 테니스대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의 경기는 老童部와 靑壯年部 A, B組 등 3개 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대회 전전은 다음과 같다. ◆老童部 ▲우승=李泳澤 ▲준우승=李泳澤 ◆靑壯年部 ▲우승=李泳澤 ▲준우승=李泳澤

同期會 소식

회장에 金在潤 동문 商大 10회 定期總會 (회장 金在潤)는 지난 10월 20일에서 36층 아스트로에서 금년도 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金在潤 동문(한우은행부총재)을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설했다. 이날 개편으로 새로 임명된 부회장은 李鍾衍(조흥은행부이사), 姜晉佑(우정개발자개발이사), 朴正龍(우정개발자개발이사), 崔海殷(대림중상부이사) 등이며, 그리고 南南지역 동문회 회장에는 朴錫植(동우은행부총재)이 임명된 것을 새로 구성했다.

特技帝王 戴冠式

○商大 11회 商大 11회 定期總會 (회장 李升雨)는 지난 11월 11일 하오 6시 30분 롯데호텔 36층 발류룸에서 秋季總會를 갖고 87년 特技帝王 戴冠식을 가졌다. 이날 會場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한 이날 총회에서는 모 새로운 발간인 會名簿와 同窓會報, 그리고 구주 집한 會名簿를 참석 동문들에게 증정되었다.

새 회장에 李庸五 씨

○齒大 14회 齒大 14회 동문회인 1. 4齒友會는 지난 22일 밤 배서대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설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李庸五 동문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俞賢鎬 동문이 부회장으로, 金萬鎬 동문이 총무로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이날 1. 4치우회는 신임 李회장이 백관원을 기탁함에 따라 만주에 천지구선대체위원장으로 임명된 黃圭宣 동문을 위해 오는 12월 6일 이천지역 무한도를 펼치는 한편 1백 20명가량의 불우노인들을 초대 노인회경노간지를 펼치기로 했다.

회장에 徐南鉉 동문

○藥大 17회 藥大 17회 동문회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회장에 徐南鉉(성동구 화양약국) 동문을 선출하고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다.

長團회의 9월1일, 동
창회관 403호실에
주(전화 702-166
66), 會員친목에
한전 논의.

法大 21회 同期會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 모와 "을"을 법선에 寄與한"을 目的으로 984년 10월 發足を 모았다. 그 동안 會員가 者의 사회적 기반구축과 生活安定에 힘쓰다 보니 卒業年度에 比해 同期會 結成이 늘어났다고 한다.

어느 同期會나 마찬가지로 결성 당시 가짐을 겪게 되는 것인데, 同會도 이와 다르지 않다.

84년 3월 다

이후 3년에 한번씩 定期總會 學術集議會를 갖고 친목과 우의를 꾀한 것이었다.

최화상은 계수해서 2대 朴性高(한성서합치과), 3대 鄭淳學(한성세), 4대 吳季錫(한성치과), 5대 邊碩斗(세브란스차과) 등 5대에 걸쳐 5대까지 회장을 맡은 것을 역임하고 同期會를 맡은 것은 6대까지 크게 활약하였다.

이후부터는 매년 春秋로 정기 모임을 가졌는데 11회라는 의미에서 가을에 열리는데 定期總會는 11월 1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會長은 다시 鄭基根(7대·정기근차과), 李基亨(8대·제일차과), 梁棟奎(9대·부산대차과), 洪秉德(10대·홍남대차과) 등 5대를 거쳐



◆ 李相知총무



▷ 邊碩斗香早

◇ **卒業 30** 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李珍珪** 회장이 **金明國** 차대학장에게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大校舍 및 졸업 기념 사진, 졸업 30년인 회원들의 주소록 등 아스라히 잊혀져 가는 추억들이 물론 담겨져 있다.

國도교화장으로부터 감사를 올렸던 차대 초대회장을 지낸 故朴明鎭(박무신)의銅像建立사업에 도우심을 보여 期동창회로서는 유일하게 檀資를 출연하는 등 齒科界

내로서
은곳은
同期會가
이제는
신적인
있었던

것으로
노력과
무자가
알려졌

출연 30년史를
아마 歲大인회
처음일것이며
한

나라
母校의 발전위
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받아
가지 않았는데, 지난해
업지주한 기념제에서는
이에대한 보답의 표시

기회원충	이미	5명이
별세 현재	1백8명이	
생존하며	그중에서	17

에서는 모범적인 同期
會로 정평이 자자하다
모두 1백13명의 동

圖書구입비로 5백만원 支援

고문(변호사)이 선임됐는데, 초창기보다도 총무도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회의의 기반을 닦았다. 2대 회장인 박容相(동문) 사법연수원교수)은 사업형성주력을 위한基金造成에 주력하고 한편으로 1백60명 전회원의 현재를 알리는데 회원명부를 발간한

8명	이들	사회직출연	총 1백60명인
대, 이들과	살피고종류	등	
모, 이들의	法曹人으로서	활약	
선 法院·檢察	등		
중 法曹人으로서	하고 있는	동문이	43
하고 있는	명의로	19명	금용계
행정부에	에 27명	학계에	10명
기업체에	25명	자영업업	
14명, 기타로	나누어지		

한위 한위요 부하
요부문에 전문연구를하
고 있는 李暎(영운)은
文化財管理局 전문위원
등 法大人으로 이세적
인 人物도 많음이 눈
에 띈다.

同會의 모임은 年1
회 定期總會와 5월경
가족동반이유회 등의전
체 모임이 있고 理事

있다. 특히 同會는 출판된
문이 짧아 조지컬리티
악한에도 불구하고 추
業20주년 기념행사를
Home Comagday로 전
해 지난 10월 모교에서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캠퍼
일파티를 위시해 가족
레크레이션으로 분위기

으로써, 회원 친목 도모
를 기속할 필요가 있는
다. 님들이 되게 했다. 3
대인 朴煥堧동생(인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은 현 회장으로서 회
칙을 제정하는 등 회
의 內實을 늘려 하
며, 조식을 강요하는
힘을 쏟고 있다.

同會 총회원은 正
會員 1백52명, 准회원

고 있다. 이들 중에는 화
랑을 정령하면서 화랑
현회회장을 역임한 안
신 金泰成은, 周易에
일가견이 있는 黃鉉源
등은(해양대학 전임장
사) 韓宗과 단견의 주
역가 李九熙는, (세종
고종 때) 李九熙는, (세
종 때) 成慶煥은(法名
· 휴암), 法大를 졸업

會制度(이사 30) (會) 신
하여 수시로 理事會
를
소하고 있다. 또 회
의
간의 친목交誼를 더욱
강화키 위해 公報·
山·바둑·테니스 등
기
별 그룹을 조직, 하
성화시키고 있는데,
러한 그들의 활동이
전체 同期會의 활성
로 直結되도록 힘쓰고

를 한껏 고조시켜 오를
 란만에, 특히나 사강을
 가졌는데, 벼룩 李漢基
 前總理를 비롯 金致學
 崇實大總長·裴載浚 法
 大學長·李時潤 春川支院
 長 등 은사 11명을 초
 감하여 그간의 指導를
 밟아하고 간단한 선물로
 로서 답례했다. 또한이
 날 도서구입기금으로도
 배만원을 法大에 전달

한은행(韓銀會) 監事(監事) 부차장(副議長) 徐鍾煥(徐鍾煥) 청외대(淸外大) 정무제1(政務第1) 비서관(秘書官) 서기판(書記官) 宋永植(宋永植) (변호사)

▲監事 李正男(李正男)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 동무지점장(同務支店長)

▲總務 李相知(李相知) (이하 홍인대표)

전 同會 집행부이다
을과 같다.

▲會長..朴珠煥(인천지검 부장검사)

을 갖고 있으면 會의
활성화를 위한 基金造
成 및 財政充當을 위
해 年會費制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앞으로 同會는 同種
職業을 가진 회원들의
모임을 취미별 그룹처

하였고 학창시절 때부터 현재까지 法大 수위를 맡고 있는 분께

잇을 수 없는 스승

글·李琦錫

〔63년 師大卒・母校師大교수〕

의 지난 9월 5일 선생님이
逝去一週를 맞아 합
족·동양교수·제자들이 한
끼天安宮묘지를 찾아 생
전에 선생님이學界에
룩하신 많은 업적과 가르
치심을 기리기 위하여追
慕碑을 세우고 돌아왔다.
그날 따라 참가들이 어

地理學界의 큰 별

여명이 되었을 후아니라
 點에 沈沒하고 雲霧하고
 雲 沈沒하고 雲霧하고
 문을 들게되니 첫머리를
 학을 들날수 있었으나
 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2 학기 시작무렵에 沈沈
 生들을 받고 成績을 다시
 봐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우를 달아 두는 것이 없
 에 더 자세한 말은 없
 었다. 늘 외모에서 느끼수
 있는 무뎉죽하고 엄격하면
 친 선생님의 면세도나한
 차은 公의 印象이 다른
 沈은 公의 印象이 다른
 부터 보란의 자리를 잡았
 다.

수잡이 쏘아져서 무투가先
 생님 얼굴을 떠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하였다. 1년의 지
 나고 이미 묘소를 몇번이
 나 들렀었지만 선생님의
 이 열방에 계신것같은 생
 각에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고 밤을이라도 건너방역
 구실에서 '자네 라면이라도
 하고 저녁강의(大學院) 하
 지 않겠나' 하고 손주라면
 두봉지를 갖고 오실것이
 것만 같아 선생님이
 떠났었다는 것이
 이 가지를 읽는다.

처음 선생님을 뵈은 것
 은 1959년 入試面接때

국유학 7년(1872)에 제1회 문
 助敎 碩士過程, 그리고
 助敎授 대와 작년 선생되게
 서 타게 하실 때까지 거의 20
 여년간을 가까이에서 모시
 게 되었다. 이렇게 선생되
 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갈
 는 학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인 후한일이 아닐 것
 같다. 후에 제대할 무렵
 오그나 선생에게 원교
 職進出로 잠시 門下를 나
 누게 되었는데, 선생 科擧
 助敎를 하면서 공부
 를 계속하러 가는 오년간
 라고 하시기에 별 생각
 이 『하』하고 대답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大學에서無
 給助敎의 자리고 그와 수
 운. 전일 오그나에게도 이
 부터 선생이라 하며 학
 生이라 하여 學部生이라
 시키고 불리지 않더라. 선생
 이과 門下에서 모셨다. 그

옮기었다. 大學에 入學하지
 던 지난 40여년간 선생님은
 은 남달리 後進養成에 地理
 學分野의 기초 확립과 연구
 개발, 그리고 學界와 政府
 施策에 諮問을 통하여 地
 理教育과 국가 발전에 殊勲
 히 헌신하셨다.

停年에 이르기까지 선생
 님은 6백여명의 敎授하셨다.
 여명의 碩士를 배출하셨다.
 이중에 50여명이 현재 국
 내에서 大學敎授로 활약
 하여 韓國地理學界의 큰기
 柱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많은
 은 졸업생들이 中等學校
 와 專門敎育기관에서 各급
 의 担任으로 활약하고 있
 다. 그리고 선생님은 본
 교 외에 梨花女大, 建國大,
 高麗大, 서울文理大, 空士들

으로 한 二元的 方法論을 펼쳤다. 휴전선부터 근이나어 한 지역의 人口增減의 변화가 이론적으로 해석되어 있을 때는 어느 때든지 퍼 칠씩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연유를 밝히고 돌아오곤 하였다. 즉 현장답사를 통한 한 관찰을 토대로 하여 분석하고 설명을 시도하는 경향이이며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人口地理學에 도입하였다.

또한 聚落研究에서 당시를 통한 歷史文化的 분석 방법의 도입은 이제 韓國村落的 발달 구조 기능과 변화의 살피는데 그 기초적 테두리를 이루게 되었다.碩士학위 논문지도에서 爲邑聚落研究, 驛前聚落研究

는 동안 형제친 학제를본
래도에 진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 地理學의 응용
분야에 관련된 建設部와內
務部에 저의 평생을 두고
諮問에 응하였다.

大學에서 학생지도에서는
늘 학생들을 人間的인 교
하는 마음에 부려 대하곤
하였다. 유신말기 어느날학
생운동으로 쫓기던 학생이
연구실에서 선생님과 이야
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교내 형사가 들어와 바로
앞에 앉아서 있는 학생이
이를 더듬어 죄인을 본 죄
이 있다는 것을 엿을 때까
교직생활 40여년 몸치하곤
중 가장 어려웠던 때라고
늘 들려 주었다. 그날 형
사는 그냥 돌아갔지만 하



李智皓 선생님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는 말씀하시니, 자
료수집을 위하여 북대방과 무동산사무실을 자주들러現
時勢를 두구보다 더 많이
알고 제쳤다. 아울러 敎材
교육을 위한 地理敎育敎
開發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때 先生님이 폐내신 중
고등학교 地理科와서와 부
도는 모든 地理科와서의 표
본이 된적도 있었다.

그리고 문교부의 敎科審
議委員, 中等檢定試驗委員,
獎學委員들을 맡으셨으며,
學界에서는 1960 년대에
大韓地理學會會長을 역임하시

등수 많은 교육기관에서
弟子를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셨다.

敎授業績에 못지 않게 연
구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하
셨다. 人口地理, 韓國地理,
聚落地理, 그리고 地理敎育
分野에서 초기부터 그 학
문적 기초를 마련 하는데
힘쓰셨다. 특히 1945년
전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한반도 人口地理의 분
포와 그 변화에 대한 공
간적 분석과 해석을 통한
地域構造的 특성을 밝
혀 일련의 연구들이 독보
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
다. 특히 人口數에서 단일
민간하였을 뿐 아니라 중
화성을 지니셨으며, 이를 중
시하셨다. 그리고 人口動態
와 地域性を 분석하는데는
반드시 地圖學的 分析技法
과 空間적인 근거를 바탕

[illegible]

대조간이性稟영이예외후고인해

1. 國際地理學會에 참석차
 미국에 들린 것이 있었다.
 마친 본인이 유한공리미
 네소타에서 1주일간 체류
 하면서 미시시피강 상류
 에서 피천향, 미국의 대표적
 인공강제에 불과하였
 다. 전에는 선천의 땅을
 물 한 방울도 화제를 할
 것이 없었더니 너무 많은
 양수를 대량으로 얻었다.

이 없다고 생각된다. 선생님은 생활에서 늘지 나할 정도로 위조하셨으며, 弟자들의 일을 감호하셨고, 다디든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문서주하시곤 했다. 모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20여년 전 學部의 레노르(Lenoir)모아두 이라는 물려주어 가졌으나 학포와 정교한 뜻을 잊을 줄 앎을 수 없다. 이제 그 중후한 심비모습의 선생님을 더 미칠 수 없지만 6천여권의 책과 해방후 韓國地理學 제일세대의 주역으로서 地理學발전의 초석을 이루어 두셨음은 오래 오래 모든 後學徒의 귀감 이 될 것이다.

취락지 연구에 역사문화적 分析 방법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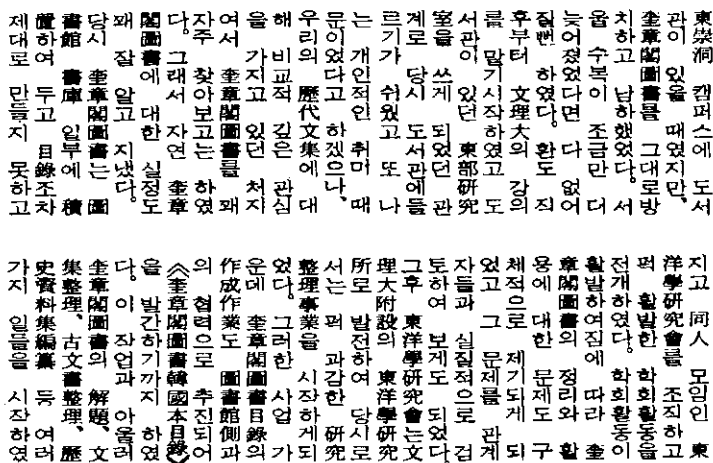
弟子사랑 극진, 6千餘藏書 母校에 기증

지역구조의 특성 밝힌 研究업적 각광 받아

이연필 6.25 때 피난길
시작해 서울로 돌아왔
宅 冊장뒤에서 발레위
을 면하던 때를 늘 잊
않고 많습니시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反共教育에
서 철저하였으며 선생님의
反共이념은 아무도 퍼뜨리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6
년 2월의 이연필 부산 피
난살을 지새울 정도였다.
1972년 선생님께서

마진부터 건생때문에 禁酒
 지지 못했다. 그후 선생은 또
 전화를 해서 지냈었다
 신생회의 다목적실이 잘
 신생인 3층에 구인자
 과도 열지 않았다. 選好한
 그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의 부분일 한상 분명하
 의 기평은 주위의 말에
 의 있었으며 이로부터 오
 이한 피해로부터 면치 못

車柱環 〈前人文大 教授〉



전체를 파악하기도 힘
다. 형편이 높
다. 당시만 해도 奎章
閣圖書의 규정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서 도
서관의 담당자들에게부
탁하면 외부로 대출할
수도 있었고 書庫에
있어서 직접 뒤적거려
보는 일까지 가능하였
다. 그러나 당시 하
더라도 奎章閣圖書의 價
値를 인식하고 奎章閣
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를 의 의하지 않았
기 때문에 그 利用
만한 대물이나 열람이
로 인해 야기되는 부
재는 그리 많지 않았
던 것으로 가늠된다.

60년대 초에 당시 文
理大學의 韓國學部 韓
한東洋學 系를 少
壯教授들이 奎章閣圖書
다들이야한 학부장님들
刷新하려는 의지를 가

다. 이러한 李章閣圖書의 研究整理事業이 발의되기에 따라 李章閣圖書를 대방으로 納하게 되고 열람인출도 많아지게 되고 하와이 관리규정의 제정이 필요하여졌고 그 運轉도 調整한 나카 하와이圖書館에 李章閣圖書委員會를 두게 되었다. 위 위원들은 다 教授로구나 다들 李章閣圖書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있었기 때문에 관리제도를 강구해 가다와지정되어있고 당시 재정으로는 생심초하거니와 제언도 나왔었다. 그러한 인식이 되니 동양과 서양에 차우하기에 비교할 만하지는 하였으나 차

바드 엔칭 도서판의 판
 장을 지낸 中國學
 書館學專門家인 葉開明
 博士가 奎章閣圖書을
 관한 적이 있었다. 葉
 博士와는 내가 58 ~ 60년
 하버드에 가 있을 때
 친숙하게 지내던 사이
 다. 그래서 私席에서 그
 를 만나 奎章閣圖書을
 참관한 감상을 물었다
 니 그는 기한없이 이
 렇게 말했다. "책들이 이
 다 무값의 珍寶인데도
 판은 零點이요." 東崇
 洞時代に 비하면 그래
 도 保管程度가 매우 한

天^하의 珍^진本^본 管^관리보존에 萬^만全^전기해야
外^외國^국학자 稀^희貴^귀本^본 열람위해 수시 방문

覽證 正統 때 카운터
에 설치된 特殊映機
로 직접 사진을 찍어
서 그 사진을 카드와
신성서에 올려놓기까지
하였다. 關覽證 발급이
엄격해진 이유를 그곳
친구였던 암아보았다
니 某外國人 學者가 關
覽機會를 얻어 회귀한
도서를 가지고 나가버
린 후부터 까다로워졌
다는 것이다. 파리의 국
립도서관에는 敍觀寫本
을 비롯하여 많이 收藏
되어 있는 의문화자들
이 빈번하게 드나든다
이 奎閣圖書는 그대부
부의 그야말로 천하의
孤本들이므로 더욱 기
존과 刊刻에 힘을 배
울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
하여야도 지나치지 않
을 것이다.

[illegible]

金 守 經
〈63년 齒大卒
母校齒大교수〉

이제 텅 비어 아무 소
 라도 없나니
 참히 그들을 먹일 것
 을 한이 어니듯 석양에
 흰바위와 잔류불 계곡
 그리고 더 잠어진 북
 와산의 위풍凛 대단
 초이었다.
 언제 보아도 관청의
 그 산을 바라보면 사
 람의 어그部分과도 같
 한 여파가지의 변화들
 을을 수 있어서 그들
 무라 오고 가는 것이
 다.

아직 햇살이 그늘이
 오 피어오르니 미미한
 화불만 잔잔히 희미하
 게 있어 산골의 잔물
 들은 그 세계로 이리
 나갔나.
 그 정동은 마침내 그
 잔물결이 수평인 여
 위나 잔물결이 허무
 나로 잠겼던 잔물결과

내릴 것이요. 바람과 파도
 하늘이든 땅이든 변함
 없게 생각하면서 자
 한 마음이로써 천지를
 어진다.

「그런데 풍요롭고 화
 음이여 가득했던 곳의
 땅이여 가을바람에
 연민의 숨이 불어
 이러한季節의 나그
 몽안 일간지와 원진
 지들의 발표하였던
 들이 모여서 수월진
 자연 그리고 삼익
 간되고 지난 주말엔
 모뎀의 계산 고향
 산을 갔었다.

석류나무도 시들고 사
 과배도 다 따고 葉도
 화추변의 코스모스와
 꽃도 다지고 그들
 빛송이만이 남아 있
 었다. 이렇게 양양
 모파나무 하나

을 수 없으니 더욱 연하여 지는 것이다. 모파주의 누르스를 빛과 물음하면서 달착지근한 맛은 소박하고 정겨운 여인이다. 수 있을 것이다.

人間은 이렇게 형식을 초월하여 혼혼한 정으로 서로를 돕고 이해할 수는 없을까? 좋게 나쁘게 그리고 선악하게 생각하고 믿고 화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모파를 바라보면 각은 삶이 그곳에 있는 것 같고 홀란 반들의 추억이 새로워지고 끝없는 세계가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여진다.

木瓜餘香은 고향의 언덕과 같이 늘 내 곁에 될 것이다.

金 守 經
 〈63년 齒大卒 母校齒大교수〉

대로 일도 푸르고 모
개하게 두면 믿을하고
은하게 매달려 있다
이 꽃을 시들어가
는 계절의 그렇게 靑
靑한 빛을 물속으로
서면 아름다운 향을
기면서 한참동안 바라
보았다.

나는 몇가지를 혼들
어서 떨어지는 두개의
모파를 주어서 車窓
에 놓았다. 이 모파는
점점 익어가면서 이
절이 다 지나갈때까지
내걸에 있으면서 고한
의情을 느끼게 할것
이다.

차차 외어서 노랗게
변하고 겨울의 길이가
면 줄아 다하고 상하
면서 잔잔 편향도 간
것이다.

나는 모파가 의어가
는 季節이 되면 變遷
村洞 望日軒을 回想하
게 된다.

그렇게 익은 모파와
에 원근의 점하고 나
달릴수 있다는 것이
기하고 그후운겨울
겨내는 모파를 바라
면서 자연의 신비로
을 되새기고는 하였다.

모파를 책상의 위
고 작품을 구상하고
間과 自然과 사물
별, 기다릴을 연
무척 고되고 애
시절의 옛그제
그런데 靑靑하고
고그늘

1월 2일 (3월 11일) 구정동 朴麗淑화랑에서 彫刻展을 개최.

(67年) 行政
政大学院卒
・本會理事

11월 21일 ~ 30일까지 서울압
구정동 朴麗淑화랑에서 彫刻
展을 개최.

월 20일 현대그룹인사조치에 따라 현대중공업회장에서 현대종합상사회장으로 취임.

근 열린 韓國參戰詩人協會의
임시총회에서 同會의 명칭을
韓國自由詩人協會로 변경. 柳
동문은 同協會會長職을 맡
고 있다.

▲尹櫻湘 (58년 工) 食糧경제신문편집위원으로 자
리를 옮겼다.

단 12주년 기념을 기회로 「서울오
페라 갈라콘서트」를 열었다

▲朴容玉(59년 文理大卒·
誠信女大교수) 〓 최근 숙명여
대에서 열린 제 4차 禮樂女

4
일
밤한중인
미국·워싱턴
(67년)
政大學院卒
本會理事
體育部長
官) 11월

11월 21일 ~ 30일까지 서울압
구전동 朴麗淑화랑에서 彫刻
展을 개최.

中年 이후 老化방지에 粥이 좋아

한 시대에 개자자 급
한 시대에 서둘러 조
한 시대에 출근하는
한 시대에 출근하는
한 시대에 출근하는
한 시대에 출근하는
한 시대에 출근하는
한 시대에 출근하는
한 시대에 출근하는
한 시대에 출근하는

粥(죽)을 보아도 조만
은 죽이 좋다는 대부
이 나온다. 『白粥』
凡晨起食粥, 利腸胃,
生津液, 令一日清爽, 所
補不少. 晚間米湯兼令
食之. (한글) 아침에 일
어나서 죽을 먹으면 소화와
장액이 풍부하고, 소화가
이 잘 되고, 저녁에 죽을
먹으면 심해하고, 하루
종일 소화하고, 물을
하루에 적지 않게
음, 땀을 흘리게
고, 사(死)는(死)라고
어 있다.
죽(粥)은 사(死)는
선조대의 죽이나 일
본의 죽은 우리의 사
정단의 아(死)는 사(死)
제나 죽음을 먹었다는

죽, 누두죽, 개죽, 호박
죽, 찹쌀죽, 전복죽, 등
서 죽과 잡다. 죽을
피와 손발에 죽을
호(粥)에서 이런 죽을
보이는 것도 죽을
하는 생(生)이다.
『藥典』에도 수백종의
『藥典』에도 수백종의
『藥典』에도 수백종의
『藥典』에도 수백종의
『藥典』에도 수백종의
『藥典』에도 수백종의
『藥典』에도 수백종의
『藥典』에도 수백종의
『藥典』에도 수백종의
『藥典』에도 수백종의

이 죽(粥)을 보아도 조만
은 죽이 좋다는 대부
이 나온다. 『白粥』
凡晨起食粥, 利腸胃,
生津液, 令一日清爽, 所
補不少. 晚間米湯兼令
食之. (한글) 아침에 일
어나서 죽을 먹으면 소화와
장액이 풍부하고, 소화가
이 잘 되고, 저녁에 죽을
먹으면 심해하고, 하루
종일 소화하고, 물을
하루에 적지 않게
음, 땀을 흘리게
고, 사(死)는(死)라고
어 있다.
죽(粥)은 사(死)는
선조대의 죽이나 일
본의 죽은 우리의 사
정단의 아(死)는 사(死)
제나 죽음을 먹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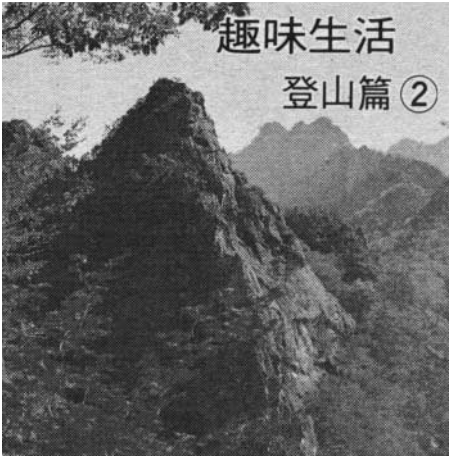
健康교실 ⑨
홍문
洪 文 和
(37년 藥大卒)
母校 명예 교수

식사는 하루에 몇번
하든지 좋으나, 조만
은 죽이 좋다는 대부
이 나온다. 『白粥』
凡晨起食粥, 利腸胃,
生津液, 令一日清爽, 所
補不少. 晚間米湯兼令
食之. (한글) 아침에 일
어나서 죽을 먹으면 소화와
장액이 풍부하고, 소화가
이 잘 되고, 저녁에 죽을
먹으면 심해하고, 하루
종일 소화하고, 물을
하루에 적지 않게
음, 땀을 흘리게
고, 사(死)는(死)라고
어 있다.
죽(粥)은 사(死)는
선조대의 죽이나 일
본의 죽은 우리의 사
정단의 아(死)는 사(死)
제나 죽음을 먹었다는

조각 정도로 먹는다
조각 정도로 먹는다
조각 정도로 먹는다
조각 정도로 먹는다
조각 정도로 먹는다
조각 정도로 먹는다
조각 정도로 먹는다
조각 정도로 먹는다
조각 정도로 먹는다
조각 정도로 먹는다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3~4시간을 여윌고
는 겨우 한쪽으로
기를 하고, 그 후
은 한으로 다. 한
것은 가(가)했다.
4~5백명의 거
대한 인원을 사(死)
사(死)시켜야 한다
운반하기도 했지
만, 보다 旅行醫學의
가(가)한 것으로 보
다, 여행중 개(개)서
에 무리를 없(없)하
는 것이었다. (한글)
金泰俊·洪大容과 그
時代(時)인(인)다.

『牛乳粥』牛乳1升
入細心小許, 煮令熟
常服最宜老人. (우유
죽, 우유에 불린 쌀을
두고 끓여 죽을 만
든다고 되어 있지만,
우유에 쌀을 말아서
먹어도 좋다. 계속
먹으면 특(특)히 노
인(人)에 좋(好)다고
하(하)고, 하(하)고
은(은) 모(모)시고 계
신(身)을(을) 보(보)고
는(는) 참(參)고 하(하)실
만(만)하다.



산은 접한 자(자)로
대(대)하여 산(山)을
보(보)거나, 산(山)을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산은 접한 자(자)로
대(대)하여 산(山)을
보(보)거나, 산(山)을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여(여)객(客)을 파(파)신

登山落穂
金于玄
57년 師大卒 · 파나旅行社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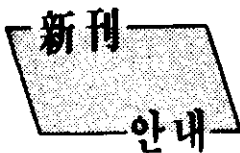
體力과 분수에 맞게 行先地 결정해야
山 알보거나 거만 客氣는 事故의 원인
夜間엔 그룹만들어 非常食 전등 휴대해야

고 있는 판(판)에
구(구)하(하)는
구(구)하(하)는
구(구)하(하)는
구(구)하(하)는
구(구)하(하)는
구(구)하(하)는
구(구)하(하)는
구(구)하(하)는
구(구)하(하)는
구(구)하(하)는

가(가)를(를) 설(設)하(하)는
은(은) 판(판)에
저(저)리(리)에서(서)부터
시(시)작(작)한(한) 불(불)등(등)
배(배)터(터)라(라)는(는)
죽(죽)으로(로) 배(배)치(치)고(고)
서(서)우(우)리(리)의(의) 전(전)등(등)
도(도)에(에)상(상)보(보)는(는)
어(어)졌(졌)다(다). 대(대)형(형)의(의)
소(소)형(형)의(의) 전(전)등(등)
고(고)죽(죽)을(를) 계(계)를(를)
내(내)려(려)와(와)서(서)
신(신)을(를) 지(지)어(어)
도(도)나(나)오(오)자(자)의(의)
보(보)이(이)가(가)아(아)는(는)
얼(얼)다(다)는(는)
이(이)웃(웃)사(사)람(람)의(의)
리(리)의(의) 불(불)을(를)
이(이)나(나)의(의) 불(불)을(를)
악(악)상(상)장(장) 근(근)처(처)의(의)
불(불)을(를) 때(때)어(어)
들(들)었(었)고(고) 양(양)을(를)
서(서)손(손)전(전)등(등)이(이)
산(산)하(하)기(기)의(의) 불(불)
했(했)다(다). 일(일)행(행)
최(최)소(소)전(전)등(등)을(를)
을(을) 불(불)을(를) 때(때)
했(했)다(다). 우(우)리(리)가(가)
당(당)도(도)한(한) 것(것)이(이)
성(성)서(서)로(로) 5(五)우(우)
넌(넌)후(후)에(에)도(도) 불(불)
을(을) 수(수)가(가) 없(없)었(었)
자(자)부(부)로(로) 불(불)을(를)
모(모)습(습)으로(로) 우(우)리(리)
자(자)는(는) 새(새)벽(벽)
경(경)이(이)었(었)을(를) 새(새)
할(할) 나(나)우(우)도(도) 없(없)
대(대)형(형)의(의) 전(전)등(등)
주(주)했(했)는(는)가(가)?
나(나)는(는) 일(일)행(행)의(의)
을(을) 고(고)급(급)계(계)의(의)
다(다)시(시)는(는) 이(이)런(런)
풀(풀)이(이)지(지) 않(않)아(아)
다(다)들(들)고(고) 있(있)었다(다).

명이(의) 지(지)문(문)하(하)
수(수)는(는) 분(분)량(량)
김(김)치(치)를(를) 열(열)고(고)
을(을)서(서) 그(그) 지(지)구(구)
있(있)고(고) 다(다)들(들)어(어)
는(는) 체(체)의(의) 문(문)제(제)
가(가)는(는) 대(대)
구(구)가(가) 기(기)을(를) 차(차)
하(하)는(는) 말(말)이(이)
『설(설)마(마)나(나)』
『20(20)』의(의) 모(모)
니(니)가(가)? 모(모)두(두)
티(티)로(로)다(다). 하(하)지(지)
부(부)로(로) 지(지)구(구)의(의)
있(있)고(고) 우(우)리(리)는(는)
한(한)들(들)은(는)도(도) 단(단)
부(부)인(인) 오(오)차(차)와(와)
게(게) 세(세)상(상)의(의) 단(단)
게(게) 되(되)었다(다).

가(가)를(를) 설(設)하(하)는
은(은) 판(판)에
저(저)리(리)에서(서)부터
시(시)작(작)한(한) 불(불)등(등)
배(배)터(터)라(라)는(는)
죽(죽)으로(로) 배(배)치(치)고(고)
서(서)우(우)리(리)의(의) 전(전)등(등)
도(도)에(에)상(상)보(보)는(는)
어(어)졌(졌)다(다). 대(대)형(형)의(의)
소(소)형(형)의(의) 전(전)등(등)
고(고)죽(죽)을(를) 계(계)를(를)
내(내)려(려)와(와)서(서)
신(신)을(를) 지(지)어(어)
도(도)나(나)오(오)자(자)의(의)
보(보)이(이)가(가)아(아)는(는)
얼(얼)다(다)는(는)
이(이)웃(웃)사(사)람(람)의(의)
리(리)의(의) 불(불)을(를)
이(이)나(나)의(의) 불(불)을(를)
악(악)상(상)장(장) 근(근)처(처)의(의)
불(불)을(를) 때(때)어(어)
들(들)었(었)고(고) 양(양)을(를)
서(서)손(손)전(전)등(등)이(이)
산(산)하(하)기(기)의(의) 불(불)
했(했)다(다). 일(일)행(행)
최(최)소(소)전(전)등(등)을(를)
을(을) 불(불)을(를) 때(때)
했(했)다(다). 우(우)리(리)가(가)
당(당)도(도)한(한) 것(것)이(이)
성(성)서(서)로(로) 5(五)우(우)
넌(넌)후(후)에(에)도(도) 불(불)
을(을) 수(수)가(가) 없(없)었(었)
자(자)부(부)로(로) 불(불)을(를)
모(모)습(습)으로(로) 우(우)리(리)
자(자)는(는) 새(새)벽(벽)
경(경)이(이)었(었)을(를) 새(새)
할(할) 나(나)우(우)도(도) 없(없)
대(대)형(형)의(의) 전(전)등(등)
주(주)했(했)는(는)가(가)?
나(나)는(는) 일(일)행(행)의(의)
을(을) 고(고)급(급)계(계)의(의)
다(다)시(시)는(는) 이(이)런(런)
풀(풀)이(이)지(지) 않(않)아(아)
다(다)들(들)고(고) 있(있)었다(다).



※이欄은 同門들께
서려낸 新刊서적을紹
介해드리기 위해 마련
했습니다. 새로 저술
한 著書를 本報 편집
실로 보내주시면 게재
토록 하겠습니다.

□갈투의 사회학

—朴權相 著

52년 文理大출신의인
문인으로 뒤를이 사회
현실을 「박권상 민주
화 논설」이라는 부
제를 붙여 고발하고 있
는 著書이다.
著자가 85년부터 87
년까지 사회의 非理
를 고발해온 글 41편
을 싣고 있다.
常識이 지배하는 사
회, 민주화의 조건, 민
주주의와 자유언론, 통
일로 가는 길들에 대
해서 다루고 있는데, 대
금의 내용을 보면, 강
제과 공약이 엮이지
않고 있는 언론인의 목
소리가 진하게 담겨있
음을 본다. (知識産業
社刊 값3천5백원)

□韓國政治研究

—서울대학교
韓國政治研究所

故公三閔內台前母校
교수의 10주기를 맞아
추모집으로 모교 한
국정치연구소 (소장 김

□夢遊桃源圖

—安輝潛·李炳漢 共著

母校人文大의 考古美
術史교수인 安輝潛은 문
漢문들의 共著로 朝鮮



榮國대학원장)가 「韓國
政治研究」를 창간했다.
韓國政治의 再照明을
주제로 꾸민 창간호엔
한국정치, 한국의 정
치사상, 한국의 정치와
정통, 세부분으로 나누
어 閔公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받은 20여명의
後學과 弟子들의 논문
을, 부록으로는 金學
俊교수의抗日투쟁에관
한 追憶을 수록하
고 있다.
本報편집위원이기도한

金榮國교수는 發刊辭에
서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을기적경향을 가진
논들을 게재할 것이
고 이로써 保守主義와
혁신주의의 對話도 추
진할 것이라고면서, 이
창간호의 多元主義
향을 學問的 多元主義
로 표현하면서, 公三閔
생이 생전에 한국정치
학에 심고자했던 사
상이기도 하다고 말하
고 있다.

□鄭芝銘研究

—金澤東 著

58년 文理大卒, 西江
大교수로 재직중. 38년
동안 그의 이름을차마
음대로 부를수 없었던
詩人 鄭芝銘의 문학과
생애를 본격적으로 연
구한 著書로 拉北37년
만에 출간돼 문단의 관
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문교부의 「越
北作家의 작품집」은 계
속 解禁을 보류하되,
해설·연구서의 출간은
허용한다」는 조치에따
라 이루어진 것으로이
책은 풍부한 寫眞實報
와 함께 언어의 感賞
美와 虛靜原理, 神聖性

□證券去來法

—辛永茂 著

67년 法大출신의 現
役 변호사. 우리나라 중
견시장의 역할을 대
입에만 집중되어 있는
富를 일반투자자와 기
업종원들에게 再分配
하고 기업경영을 민주
적으로 통제하며, 유
대기자본을 투기자본
니 産業資本으로 흡수
하는 기능에서 찾고있
는 著자가 국민경제전
체의 효율성을 제고시
키는 데 초점을 맞춰
述하고 있다.
이에따라 證券去來法
1만 4천원

□社會認識論

—車仁錫 著

이 著書는 철학적 연
구가 미진한 사회를보
다 실용적으로 파악하
는 방법으로 인간의기
능적 존재양식인 노동
본질론적양식인 인을하
와 상호작용하는 두가
지 기본양식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살피는 학문으로, 어떻
게 하면 인간이 가장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家庭閑談

長老이신 남편과 내
가 결혼한 것은 60년
불이었다. 3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3남1녀
를 두었다. 長男은 아
버지를 닮아서 學究의
이어서 培材高校에 다
닐 때부터 首席를 하
고 서울工大를 거쳐同
大學院 建築工學科에 재
학중이다. 나의 큰 기
쁨은 서울대 출신생과
결혼하여 아들을 서울
대에 입학시켰다는 것
이다. 우리집 長老남은
공무원에 모으기 때문
에 아이들을 키우고집
안살림을 하는데 어
려움이 많다. 그동안식
료품 가게도 하고 建
築도 하면서 살림을꾸
려 왔다.

노련하고 생애



南潤淑女史
(李興鍾 58년 師大卒
禮一女中선생부인)

정이다. 따라서 家訓은
「忠孝의 思想」으로 정
실하 노련하자」로 정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가 「工夫와 努力

우 때, 그 한문실력에
놀랐다. 지금도 우 때
리 진은 학구적인 가 우 때
하였다. 우리 나이가
원래 자식이 없으면서
선친공으로 발돋움하고

이 우리집의 표어이다.
우리 가족은 모두 교
회에 다니기 때문에가
독교정신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나의 입구는 우리집
양반이 평생 학구적이
면서 교회에 잘 다니
도록 보살피는 데 있다.
이 고 자녀들을 잘 양
육하는데 있다고 본다.

長老남은 세번 해의
연수를 하였는데 나는
그때마다 갔다. 오도록
권유하였다. 한민회는
본교육사상, 두번째는뉴
럼교육사상, 세번째는
노동교육사상이었다.

앞으로도 학에 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와
서 우리 나라의 발전
과 우리민족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것이 나의
참된 소망이다.

同窓會費 납부하여 母校支援과 獎學사업에 寄與합시다

年会費 納付 현황

(會長・理事 10월 24일 / 11월 25일까지)
一般會費 10월 24일 / 11월 25일까지

※ 人名 밑의 괄호 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常任理事

▲ 家政大學長 南相瑛 10 만원

理事 <5만원>

▲ 金順五 59 석관고교 교장

◇ 家政大學

◇ 工科大学

▲ 成樂辰 59 동원대학교 사북공업소장
▲ 河龍培 52 금성기(주) 전무
▲ 高源鎭 59 대한양행 대표이사
▲ 曹圭完 59 산부산업사 회장
▲ 金允基 59 A and A 한국지사장
▲ 金勝洙 57 (주) 삼양사 부사장
▲ 金股泳 59 KAIST 화공화 부장

◇ 農科大学

▲ 李海文 73 동아맥주(주) 품질관리부
▲ 朴明圭 56 순천대학교 학장
▲ 李碩柱 58 농악공인협회 상무
▲ 李載現 58 용인정신병원 관리위원장
▲ 朴贊英 48 풍한빌요(주) 전무
▲ 朴成遠 41 성원의원장

◇ 文理科大学

▲ 金容九 61 서울대학교 교수
▲ 梁在炫 51 단국대학교 학장
▲ 李元洪 55 대한무역진흥공사 이사장
▲ 尹恒烈 60 공우원인법관리공단 이사장
▲ 韓煥煥 60 중앙대학 법대교수

◇ 法科大学

▲ 孫珠璿 52 연세대 법대교수
▲ 金首漢 44 전 서울대법대 학장
▲ 柳重年 59 (주) 웨스콘 사장
▲ 金培泰 59 국회의원
▲ 盧信永 59 국무총리
▲ 李宅教 57 국회의원
▲ 朴性日 58 삼원증권 사장
▲ 尹壽重 54 주부
▲ 姜永奎 52 전 한진광업 사장

◇ 師範大學

▲ 趙澈元 59 광덕종합건설(주) 사장
▲ 林漢洙 60 성신여대 교수

◇ 商科大學

▲ 李鼎圭 58 새창상사 사장
▲ 崔炳喆 59 (주) 미도파 부사장
▲ 金南興 54 한국주택은행 강남 지점장
▲ 金一洙 57 조흥은행 남대문 지점장
▲ 李煥行 59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 鄭夢準 75 현대중공업(주) 회장
▲ 康京珠 51 인국화재해상보험(주) 전무
▲ 金勝彥 59 중소기업은행 담십리 지점장

一般會員 <1만원>

◇ 人文大學

▲ 李育貞 58 임용회
▲ 金忠泰 58 조순용
▲ 金忠泰 58 조순용
▲ 金忠泰 58 조순용
▲ 金忠泰 58 조순용

◇ 家政大學

▲ 金容姬 58 김성희
▲ 金容姬 58 김성희
▲ 金容姬 58 김성희
▲ 金容姬 58 김성희

□ 年會費 납부 안내말씀

歲暮가 가까와 옵니다. 年末이 되면 그동안 다하지 못한 여러가지 일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年會費를 납부하지 않은 同門들께서는 이달 안으로 내주셔서 同窓會 활성화에 寄與해주시기 바랍니다. 會費를 계속 내주시지 않은 동문들에게 오는 年初에 별도의 안내서신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會費 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任理事會費 10만원
- (회원 3천명 이상) 20만원
- 監事會費 30만원
- 副會長會費 50만원
- 會長會費 1백만원

◇ 社會科學大學

▲ 趙容泰 58 김두영
▲ 趙容泰 58 김두영
▲ 趙容泰 58 김두영
▲ 趙容泰 58 김두영

◇ 工科大学

▲ 尹鍾坤 61 김재홍
▲ 尹鍾坤 61 김재홍
▲ 尹鍾坤 61 김재홍
▲ 尹鍾坤 61 김재홍

◇ 文理科大学

▲ 金在圭 59 김형일
▲ 金在圭 59 김형일
▲ 金在圭 59 김형일
▲ 金在圭 59 김형일

◇ 農科大学

▲ 朴瑞珠 59 박성홍
▲ 朴瑞珠 59 박성홍
▲ 朴瑞珠 59 박성홍
▲ 朴瑞珠 59 박성홍

◇ 農科大学

▲ 金在圭 59 김형일
▲ 金在圭 59 김형일
▲ 金在圭 59 김형일
▲ 金在圭 59 김형일

[illegible]

實用英語 강좌 개설

語學研서 오는 19일까지

어학연구수에서는 87학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주간 실시하며 수강료 는 5만 5천원이다.
-----------------------------------	--------------------------------

收益金
내년부터
使用

工大 4억 6천
看護學科 8천 5백만원 모금

지단 86년 3월부터 개	성남시의 규모에 따라 3	구재단에서 관리·운영하
교 46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미만의 학과(소	게 된다. 특히 이 기금
전개되었던 「대학발전기금	수단과대학(원)에 3천만	의 운영은 출연자의 각
조성사업」이 중단, 학부	대학에 관리하고	동 출연조인(학생연구·
부, 기능성, 기관 등의 조	화에 이상의 학과나 해당	도서기금, 장학기금)을
부조인, 장학금, 장학혜	학과의 희망에 따라 소	출한다. 이행하기 위하여
부조인, 장학금을 지우고,	수단과대학(원)에 위탁	대학발전기금관리인
이제 학술연구활동, 장학	하고 관리하거나	따라 운영하게 된
다. 연구자	제정할 결정하여	학술진
다.	발도의	구정
	다.	다.

한편, 발전기금이 가장 많이 조성된 단대는 공대로 알려진데 4억6천만원이 모금되었고, 과별로는 간혹하파가 8천5백만원으로 최대의 금액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學則改正작업 착수

研究委員會구성
設問조사등
실시

로 모면, 대한불교중앙의
57년 5월 5일 백만인 단
과대회 (원) 및 영구수단
위로 17년 5월 5일 백만
각 학과단위 6월 4일 9
백만인이다. 특히, 이종
로 전부터 단위가 될 현
로 조종된 것도 그 시
가역이 2년 6월 2일 백
한다.

조성의 학원전 기관은
각 모면단위로 본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판리
유형하게 된다. 나머지
금단위는 그 단위가 화
과로 되어 있는 것과 정
화적개정작업이 본격적
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화교측은 「학적개정」을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
한 것으로 실시했다. 학적
및 관한 설문조사결과
조종생에게도 마련한
고서들을 토대로 10월 30
일 첫 회의를 가지고 화
적개정을 위해 세부사항
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로 알려졌다. 총화생회
에서 이미 지난 21일
다룬지에서 부당학적개
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
한편 총화생회에서 마
련한 「현행학칙」을 통하
본 부당조항에 대한 보
고서」에 의하면, 현행학
칙 중 개정의 요구되는
조항은, 문교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만하도록 되
어 있는 조항, 문교부 및
행정관료가 학내행정인
외한으로써 권위주의적
조항, 학생의 권리를 부
당하게 억압하는 비민주
적인 조항 등 크게 세

[illegible]

法律相談室 개편
救助事業등 실시

곧 一般에게도 확대할 계획

[illegible]

는 무량한 형사피의자나
회자. 民事회자에 대
해서도 법률구조를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성과와 재정
현황에 따라 대상을 일
반의에게도 확대할 아
래 인권보호실도 확대개
편할 계획이다.

韓國政治研究所

「韓國政治研究」 창간

韓國政治研究所

「韓國政治研究」 창간

大學自律化推委 결정성

教授協議會 산하

이사회에서 정식구성원
「推進委」는 教授協議會는
5명의 부회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산하에 「大學自
律化推進委員會」(이하
推進委)를 정식구성하
도록 결정한 활동을 시작
했다.

산하 각 단대(원)·연
구소 19개 분會에서고
크게 人選한 것으로 밝
혀졌다. 또한 『推進委』
지나 30일 첫모임을 가
졌는데, 이에 대해 『推進
委』위원장 李相福(가)
신화(新華)는 『推進委』가
동등으로써 교수회의의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이라 말하면서 『학원
자율화는 단기간에 해결
될 문제가 아니며 장기
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李 교수는 첫모임의
에서는 향후 활동방향과 과
제서만 일단의견을 표
현했다고 언급하면서
『推進委』는 독자적활동을
전개하면서 학회정변이
나라 대학의諸문제를다
룰것』이라고 밝혔다.

[illegible]

박물관 考古學 조사단

오산리 先史遺跡 발굴

모교 발원관	고교학초
신설기 유적보다 적어도	2천년 앞선 것으로
타나 한민족의 기원본래	정착생활상을 발할 수 있
는 중요 유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런 발굴에는 박물관	의 연구원들이 포함되어
고미술사학, 인질과학부	의 국내의 학자들이 참
여하고 있다.	

教授人事

▲한경대 학원 부교수李正典 〓한경대 학원장보 겸 무를 명한 (10월1일字)
 ▲사법대 부교수 金東進 〓한경대 부처장 겸무를명한 (10월12일字)
 ▲농대 부교수 權純國 〓농대 학생인명장보 겸무를명한 (10월23일字)